

# 영산강변 한 '농민공동체'의 삶

文淳太의 「타오르는 江」을 말한다

李明翰

소설가

## 신문기자 시절 취재경험이 밑거름

“요새 무얼 쓰고 있어요?”

“아무 것도 못써요. 몸도 안좋고요. 그리고 너무 바빠서...”

그저 아무 작업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거포가 터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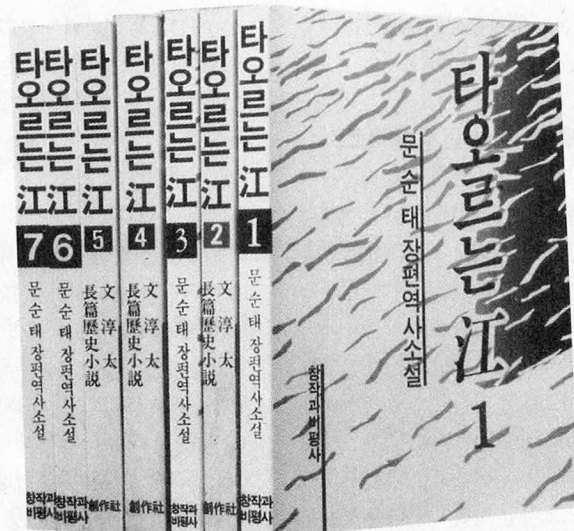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너무 검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걸 두고 아무도 거짓말장기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작업을 많이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인식이 곧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작품의 무대가 다른 곳을 맴돌다가도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으로 돌아오기 예사이다. 무대가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고향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문순태씨의 고향은 그러나 「타오르는 江」의 무대가 된 영산포가 아니고 담양이다. 그러면서도 영산포 새끼내 이야기를 썼다. 문순태씨의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龍沼라는 폭포가 있다. 영산강의 始源을 탐사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용소가 영산강의 발원지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문순태씨는 결국 영산강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작품의 모티브를 얻은 동기나 소재의 선택은 그가 全南每日新聞에서 기자 노릇을 하면서 취재했던 宮三面사건에서 받은 충격을 소재삼아 작품화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가지 이유를 덧붙인다면 처가집이 영산포이니까, 처가의 반쯤은 내집이고 처가동네도 반은 내 고향이라고 봤을 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비극의 시대 산 농민집단의 삶 증언

영산강은 범람하기로 유명한 강이다. 그래서 넓은 땅이 황무지로 버려져 있었다. 이런 땅들은 새로운 개척지를 찾는 사람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만 대개는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나 새끼내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그 땅을 개간하여 하나의 농민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집단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버림받거나 뿌리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에는 갑오경장 때 노예의 신분



문순태의 소설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설움 받고 상처 입은 '꽃밭없는' 인생들이 등장하며, 그런 만큼 민중적이다. 하지만, 민중의 편에 서면서도 증오의 섬뜩함은 내비치지 않는다. 그는 민중의 한을 푸근한 휴머니즘의 품 안에 감싸 안는다.

에서 해방된 옹보라는 사람도 끼어 있었다. 옹보는 도망했다가 잡혀서 이마에 불도장이 찍힌 노예의 손자다.

戊子年(1888)에 큰 흉년이 들자 새끼내 사람들은 한톨의 수확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유리걸식을 하다가 돌아와보니 엉뚱한 협잡꾼이 나타나, 그동안에 자기가 地稅를 대납했다며 그것을 반제하지 않으면 토지를 점유하겠다고 협박한다. 흉년으로 당연히 면세되어야 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모가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羅州 宮三面土地事件이다. 궁삼면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있었던 枝竹面 上谷面 郁谷面의 많은 토지가 협잡꾼의 손으로부터 일단 王室의 손으로 넘어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끼내의 땅을 포함한 三面의 토지는 다시 동양척식회사(이하 동척)로 팔리게 됨으로써 농민들은 이제 동척을 상대로 오랜 시간을 두고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도 땅을 되찾을 수 없다

고 단념한 사람 가운데는 새끼내를 떠나 장사꾼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의병이 되기도 하지만 남은 농민들에 의해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끝내는 선창가에 있는 동척의 창고에 불을 지르게 된다. 동척을 지키던 헌병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를 낸 새끼내 마을은 공포에 싸이는데, 옹보의 아들 장개동이는 後代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된다.

## 휴머니즘으로 승화된 恨

박경리씨의 「土地」가 가족사적인 것이라면 김주영씨의 「客主」나 문순태씨의 「타오르는 江」은 꽃밭없는 인간들의 집단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속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중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客主」가 상인들의 공동체를 실현해보고자 한데 비해서, 「타오르는 江」은 농민적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면서 하나의 공동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문순태씨의 글에서는 항시 실형민과 설움을 받는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민중의 편에 서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었기로 그의 작품에는 시퍼런 칼날이나 피비린내 나는 섬뜩함을 찾기 어렵다. 처음에는 恨으로 형상화되다가 끝내는 휴머니즘으로 소화시켜버리는 것이다. 동척 농장의 창고에 불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날 장개동이 아들을 낳는 사건으로 이 소설이 끝을 맺는 것은 바로 이런 휴머니티의 발로라 해야 할 것이다.

문순태씨는 이것 말고도 많은 작품을 썼다. 「고향으로 부는 바람」 「징소리」 「걸어서 하늘까지」 그리고 「무등국」이 있으며, 현재 「大地

의 아들」을 신문에 연재하고 있다.

문순태씨는 징검다리를 잘 뛰는 인생편력을 가지고 있다. 전남대에서 조선대 국문과로 옮긴 것이 하나의 징검다리 뛰기였다면, 전남 매일신문에서 잠시 모교인 조선대로 옮기는가 했더니 다시 신문사로 돌아갔고, 80년 5월의 그 모질고 사나운 바람에 낙엽으로 떨어져 얼마동안 굴러다니다가 順天대학이라는 언덕에 간신히 달라붙었다. 그곳에서 안정을 찾아가 했는데, 비둘기가 몸은 남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과 같이 다시 언론계로 돌아온 것이다.

대학에서는 그래도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소설을 쓸 수가 있는데, 신문사란 곳은 워낙 시끄럽고 분주한 곳이어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걱정했었지만, 그는 지금도 정력적으로 줄기차게 글을 써내려가고 있다.

80년에 직장을 잃고서 노모를 비롯한 가족들을 먹여살리느라 팔이 뺏꼈할 정도로 원고를 갈겨써야 했고,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었지만, 옛날에도 流謫생활 속에서 문장이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가 풍성할 수확의 계절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작품도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혔던 작품인 것이다.

## 아직도 지속되는 새끼내의 가난

나는 이따금 새끼내라는 곳을 갈 때마다 「타오르는 江」을 생각하곤 한다. 지난 7월의 홍수때는 예외없이 이 마을이 침수되어 주민들은 큰 난리를 겪었다. 내가 찾아갔을 때, 사람들은 젖은 이불과 옷가지들을 내놓고 별에 말리고 있었다. 새끼내의 비극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지금으로선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작가는 그 이야기를 써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는 것이다.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을 전후한 30년간은 민족사의 격동기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일개 움과 깊은 상처를 동시에 안겨주었던 시기였다. 이런 비극의 시대를 살았던 가난하고 불행한 한 농민집단의 삶에 대한 증언이 담긴 이 소설은 몇개 안되는 대표적인 대하소설로서 문학사에 남게 될 것이다.